



지은이 - 자와할랄 네루  
옮긴이 - 최충식  
펴낸곳 - 일빛

식민지 인도의 독립을 위해 살다간  
네루가 딸에게 써 준 선물

## 〈세계사 편력〉

식민지나 혹은 저개발국가가 살기 좋은 나라로 성장한 역사나 위기에 처한 나라가 위기를 극복한 경우를 잘 살펴 보면 국민 모두의 힘을 합한 노력도 노력이지만 그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생각이나 힘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 꼭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. 프랑스의 위기에 잔 다르크라는 용맹한 소녀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영웅으로 활약한다든지 무수한 예를 들 수 있지요.

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지금의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신적 지도자 간디 외에도 오늘 소개하려는 네루가 있습니다. 1829년 인도의 귀족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 열 여섯 살 때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등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돌아와 변호사가 된 네루는 그러나 자신의 안정된 좋은 직위와 신분을 버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. 무려 아홉 번이나 감옥에 갇히고 부모와 아내까지 투옥되는 고초를 겪게 되는데 이때 제대로 돌볼 수 없었던 어린 딸에게 감옥 안에서 강한 정신력과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세계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길러 주려고 세계의 역사를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. 네루가 딸에게 보낸 이 편지로 된 세계사 이야기는 서양이 강하고 우월하다는 서양 중심의 사상과 교육을 부정하고 동양 국가의 위대함을 일깨워주고 나라와 세계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

네루는 훗날 인도의 수상이 되어 인도를 위해 일하고 그 딸 인디라 간디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인도의 수상이 된답니다. 네루가 딸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을 적으면서 여러분을 세계의 역사로 초대합니다. “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. 무엇을 하려 할 때 결코 사람들에게 숨기거나 숨기려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. 무엇을 숨기려는 마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망설이게 만들기 때문이다.”

〈글/김영숙(시인, 해오른누리기획실장)〉